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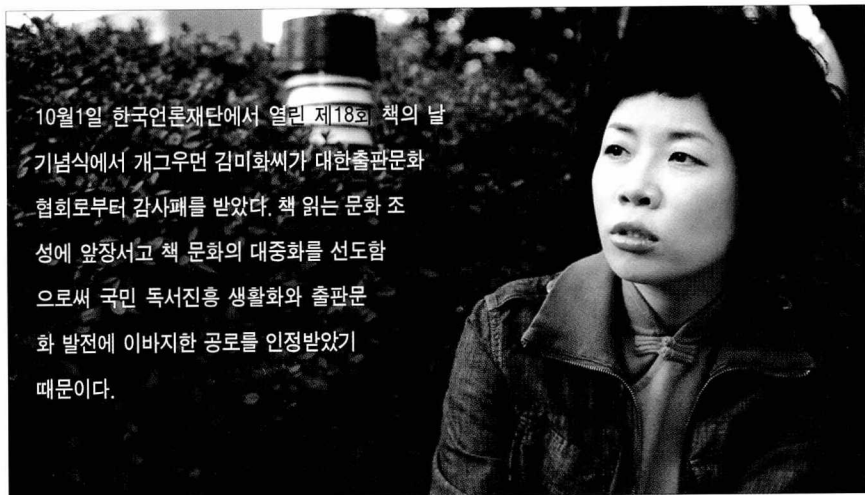
# “북스타트 운동은 미래 위한 건실한 투자”

감사패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2000년 무렵부터 유아,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해오고 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옛날이야기를 듣던가 책을 같이 읽으며 감성을 많이 키워놓으면 성장했을 때도 그 아이의 감성은 훌륭하게 계발된다. 결국 북스타트 운동은 어린아이, 즉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책을 빌려주고 읽어주며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사실 나보다 북스타트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한 사람이 많다.

이번 수상의 의미가 색다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기 경력에 올해로 21년째이고 그간 상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책과 관련된 상은 받아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다. 학창시절에도 책과는 그리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그저 책 읽는 것이 멋져 보인다고 생각했을 뿐, 나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여겨왔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감사패 수상은 개인



10월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제18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책 읽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책 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독서진흥 생활화와 출판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적으로 너무나도 뜻깊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또한 50만원의 도서상품권은 정말 뿌듯(?)하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책을 사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물론 북스타트 운동에도 활용할 생각이다.

책은 자주 읽는 편인가?

한 달에 3권정도 읽는다고 보는데 다 읽는 책도 있고 그 중에는 절반만 읽는 경우도 있다. 원래 차례차례 읽는 성격이 아니다.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같이 읽어나간다. 그래서 집에 가면 침대에도 책이 있고 바닥에도 책이 있으

며 주방이나 거실 테이블 등 집안 구석 구석에 다양한 책들이 놓여 있다. 접근 가능한 곳에 책을 두고 그 상황에 따라 책을 읽어나간다. 그럼에도 책을 읽을 때와 책을 원작으로 한 연극이나 영화 작품을 접할 때 받는 감동에는 차이를 느낀다. 그래서 책을 빨리 읽고 많이 접하는 것보다는 감동을 오래 간직하는 것에 훨씬 더 취하곤 한다. 주로 베스트셀러나 재미있는 글귀가 있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외수씨의 감성사전, 베르나르베르베르의 개미, 뇌 등의 작품은 매우 유익하게 읽은 기억이 있다.

추천해줄 만한 책은 있다면?

'재미나는 인생' 등 성석제씨의 책은 어떻게 하면 말을 맛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개그맨으로서도 믿기 어려운 언어의 유희가 느껴진다. 원고지 10장을 넘지 않는 짧은 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희비극적 단면을 촌철살인의 언어로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표면에서 생의 비밀을 들춰내는 저자 특유의 섬세한 관찰력, 날렵한 비유와 의문스런 유머, 빠르고 정확한 달변의 화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이와 같은 책 속에서 코미디의 소재를 찾게되는 경우도 많다. 책 속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될 때마다 그

책갈피를 접어놓는다. 나중에 그 소재가 필요할 때면 표시해놓은 부분을 찾아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워낙에 책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라 남들한테 잘 주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성격이다.

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회복지학 전공을 선택하게 됐다. 마음 한 구석에서 항상 무언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고 나의 영혼도 쉬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그 답으로 사회복지학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여유가 생기면 남들보다 도와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며 40살 전에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별러왔다. 방송관련 분야는 어차피 경험이 있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했고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사회복지학을 선택하게 됐다. 다행히 연기를 하며 인기도 얻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를 시작

할 수 있어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올해 41살인데 내년에 벌써 졸업이다.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사회복지학 분야로 공부를 계속할까도 고민중이다.

요즘 활동은 어떤가?

방송생활은 항상 비슷한 것 같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진행하고 KBS의 'TV는 사랑을 싣고', EBS의 '희망풍경' 등 TV 방송도 몇 작품 맡고 있다. 특히 매주 일요일 오전 7시20분에 방영되는 EBS의 '희망풍경'은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3명 선정 그들의 삶을 추적, 보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애착이 간다.

취미생활이 있다면.

일요일에는 교회에 다니고 여유가 생기면 등산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연예인이다 보니까 주말에도 행사가 많다. 각종 행사들을 주말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NGO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자주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산책이나 자동차 드라이브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 뭐니뭐니해도 집에서 독서하는 등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것 같다. 그리고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는 않은 편이다. 열심히 살다보면 그게 모여서 계획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욕심없이 하루하루 충실히 생활함으로써 만족을 찾아가고 있다.

(인터뷰 : 조갑준 차장·사진 : 장흥일 기자)



북스타트 운동이란?

영국 버밍햄의 아들이 그린메디컬센터에서는 생후 7~9개월이 지난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가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에서 아이의 청각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메디컬센터는 아이의 부모에게 그림책과 독서요령 책자가 들어있는 꾸러미를 선물한다. 이것이 '북스타트 운동'이다. 그 결과 북스타트 운동의 혜택을 본 유아들은 독서 습관이 붙었고 도서관 이용, 북클럽 가입이 현격히 높았으며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읽고 쓰는 능력과 수치계산 능력이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독서 캠페인의 일부가 되었다. 이 운동을 통해 2000년 여름, 영국의 92%지역에서 월 10만권의 책이 전달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운동이 전파되고 있다.